

한국노총전남본부가 주최하고 전남도 노사민정협의회가 후원하는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추진사업 우수기업 탐방'은 보다 나은 고용환경을 만들고 그 토대 위에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로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인식하도록 집중 홍보 및 캠페인 활동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산업평화를 이룩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노사 상호 존중과 배려,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비정규직,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전개로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을 위해 전남지역 노사민정 참여와 협력한 사례를 집중 부각함으로써 견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믿는다.

기업들의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제공은 궁극적으로 업무효율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모든 사업장이 고용환경 개선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같은 사업을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찾아간다. <편집자 주>



에너지 안보의 교두보로 충청 이남의 유일한 석탄광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사고 예방 위해 총력 경주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
산업발전과 조국근대화의 초석으로 100년 기업 지향
공기업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
남북교류시 기술력 바탕 남북관계 활성화 교두보 자임

한 때는 조국근대화와 산업부흥의 주역으로 각광을 받았던 석탄.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산업재였던 석탄이 이제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최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중 하나로 화력발전소가 거론되면서 그와 관련한 석탄광 역시 주변 위협요인으로 떠오르면서다. 사정이 이러하니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후 광업소의 입지는 더욱 악화되면서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1960~70년대 쌀값 등의 부족으로 무분별하게 훼손되어 벌거숭이화 되던 대한민국의 산림을 지금의 울창한 숲으로 만들고 국민의 안방과 겨울을 책임진 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대한민국 1호 공기업 대한석탄공사 그리고 화순광업소는 공사창립 70년을 1년 앞둔 2019년

오늘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화순광업소는 5년 전까지만 해도 근로 인원이 520여 명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380여 명으로 줄어 그 위상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화순에서 생산되는 탄질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다. 화순광업소는 매장량이 풍부함에도 잠재 개발 가치가 높고 석탄의 점착성이 높아 가정용 연탄으로 적합해 국내 어느 연탄공장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특히, 대한석탄공사 산하 3개 광업소중 유일하게 호남에 위치하며 안정적인 수급역할 수행을 통해 충청이남의 에너지 빈곤층이 한겨울에도 차질없이 지낼수 있도록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화순광업소는 개

광이래 약 2,630만톤의 무연탄을 생산 공급하며 1차 에너지 공급원의 주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1950년 11월 공사창립이래 조북, 남경구역, 북암구역 등 무연탄이 묻힌 구역의 명칭을 따라 생산개발을 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까지 동구역 및 북암구역 2개 구역으로 생산부를 나누어 2생산부 체제로 운영하던 생산 현장을 정부의 석탄공사 기능조정 계획에 따라 동구역인 1개 생산부 체제로 전환, 현재는 동생산부 한 곳에서만 생산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무연탄의 수요 감소가 이어져 최대 무연탄을 생산하였던 1989년의 705천톤을 기점으로 2019년 현재는 최대 생산년도의 14%정도인 10만톤 생산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작업환



경 및 생산기반 역시 전성기 50만톤 이상의 생산과 1500여명 이상의 직원을 유지하였던 시절을 뒤로하고 10만톤의 생산과 383(직영157명, 외주 226명)명의 근로자가 부여된 임무 수행을 위해 주야 2교대로 생산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무연탄을 생산하고 있는 지

하의 깊이는 지표인 갱구(110ML)를 기준으로 약 630미터 하부, 작업장 평균온도는 약 29℃, 습도 약 90%로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호남유일의 석탄광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오 늘도 안전작업을 다짐하여 곳곳이 책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화순광업소는 380만톤의 매장량 중 기술

적 경제적으로 채굴이 가능한 1800만톤의 가채량을 보유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향후 100년 이상의 생산이 가능한 잠재적 가치가 높은 광산이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지하자원의 채굴기술에 대한 가치를 존중받는다면 오늘날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지하자원의 개발기술은 교류활성화의 디딤돌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70년간 축적된 광산개발 기술을 토대로 북한의 지하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나후된 북한지역의 경제동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초석으로서의 역할은 2차 산업도 3차 산업도 아닌 1차 산업에서 시작해야한다고 보면 단지 지금 애물단지 취급받는 광산운영과 그 개발기술이 막연히 수요 저하와 미세먼지의 한 요인이 아니라 이유를 적대시 하고 사장화시키는 정책은 차제에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화순광업소는 무연탄생산 및 수급이라는 공적업무 수행이외에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화순군과 함께 지역상생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위한 연탄나눔 등 사회 공헌 활동과 자체적인 환경정화 활동, 찾아가는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민형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최남규 기자/화순=박순철 기자

“노사화합과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 다해”

박연규 소장

▶(전반적으로 침체된) 직원을 사기진작과 애사심 고취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 공기업 소장으로서 특별한 물질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으며 대한민국 1호 공기업으로서 1960년~1970년대 근대화의 역군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회사를 사랑하고도 당부하였고,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화순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노후 된 목욕탕 개보수 및 개인 옷장 교체 등 후생복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꼽는다면

- 각종 군·면 행사(군·면민의 날, 체육대회 등) 및 지역 치안협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지역과 함께 하는 소통,화합 문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화순군에 연탄 20,000장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쌀 지원, 회사 주변 양로원 및 유치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지역도로 및 강 주변 환경정리 등으로 지역을 가꾸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공기업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순광업소를 운영하면서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덕목은?

- 안전제일과 노사화합 그리고 탄진향상입니다. 인간중심 작업을 기본으로 인간 부재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심부화 되어가는 막장 여건으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워져가는 현실에서 노·사가 하나 되어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



여 즐거운 직장문화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국가 기업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양질의 석탄을 생산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를 소개한다면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연간 무재해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30℃를 넘어서는 지열과 습도 100%인 갭갭한 지하에서 쾌적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통기회로를 개선하여 시원한 공기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조명을 받게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정부의 미세먼지저감 정책 등에 의한 석탄생산 감소로 인하여 석탄산업이 처한 현실은 매우 심각하나 국내유일의 에너지 자원을 생산한다는 자부심과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 우리 석탄공사의 채굴 기술로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을 채굴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부디 안전작업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직장이 되도록 합시다

“노사불이 정신으로 어려워진 현실 극복에 앞장”

김영호 노조지부장

▶발전적인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 회사가 있어야 조합도 있다는 상생의 마음으로 회사의 고충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기 위해 자주 만나서 얘기하고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조합원 복지 가운데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 모든 일을 조합원을 위하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스스로없이 자기의 요구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조합의 낮은 문지방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최선이라고 여겨 사기 진작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노조를 이끄는 데 소신이나 원칙이 있다면?

- 조합원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다라는 생각으로 조합원 한 분 한 분을 모시는데 흐트러짐이 없게 노력하고 있으며 항상 조합원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 개개인의 건강이바로 우리 회사를 지탱하는 근간이며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조합원 단합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은?

- 야유회와 체육대회 등을 통해 그동안 근무 현장에서 다하지 못했던 정과 사랑을 나누면서 단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참여에 의한 사회봉사 활동을 강화하여 나눔을 통한 자기 발전과 나눔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합원간의 단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소개한다면?

- 앞으로 우리 후배들의 생존권 수수와 장기가맹을 위해 이 한 몸 불사한다는 각오로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방법을 통해 석탄산업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광업소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부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 여기고 불퇴전의 각오로 일할 것입니다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정부의 석탄정책 실패로 인해 어려워진 현실에 괜히 움츠러 들지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을 기억하시고 근무할 때나 투쟁할 때나 당당하게 버팁시다. 그리고 항상 위함이 가까운 작업자에게 항상 안전작업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남규 기자